

대학생의 색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분석

김 여 원* · 최 종 명**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석사* ·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An Analysis of Recognition and Image of Saek-dong in College Students

Yeo-Won Kim* · Jong-Myoung Choi**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7. 7. 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the means of enlarging the application of Saek-dong to fashion products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recognition and image of Saek-dong in college students. As a research procedure, the bibliographical survey on the meaning and history of Saek-dong was preceded in this study, and the students were examined on the recognition and image of Saek-dong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female students were more acquiesced with the Saek-dong and Saek-dong clothing than the male students. And the students thought that the Saek-dong was our original and traditional clothing because it was worn by our ancestors from the earliest years. The word Saek-dong reminded them of red, yellow, blue, green, white and red-brown colors in order of appearance. The most familiar color-arrange to them was red+yellow+dark-brown+green+blue, and the blue, purple, green, red, white color was thought as manly Saek-dong colors and the yellow, red, dark-brown, pink, white was regarded as feminine Saek-dong colors. Saek-dong was primarily associated with the image of Saek-dong clothing and most of the students expressed their feeling about the Saek-dong as 'cute.' Most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 practical Hanbok was best illustrated as the most applied clothing of Saek-dong and that the attempt to apply the color and pattern of Saek-dong to other modern artistic products was likely to damage the worth of traditional Saek-dong.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applying the design of Saek-dong to the fashion products, male students thought that it could be best applied to the shirts, while female students thought that the design of Saek-dong could best be applied to the personal ornaments.

Key words: Saek-dong(색동), recognition(인식), image(이미지), college students(대학생)

I. 서론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요소 중에서 한 민족의 전통복식은 그 시대의 문화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복식의 형태는 그 사회나 그 시대의 문화양식, 문화 수준을 알게 되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문화사적 역할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그 나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복식은 민족성과 민족 문화를 반영시키면서 자연적, 시대적 환경 및 주관적인 조건들에 의해 변천되어 왔다. 물질문화인 복식의 요소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형태, 재질, 색채로 나눌 수 있는데, 색채가 차지하는 의미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색채는 시각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미적인 표현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색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 역시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¹⁾

우리 민족에게 있어 색채는 권위나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상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대적 윤리관과 생활철학 등 인간의 의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는 우리 민족이 백의만을 입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궁중이나 사대부가의 복식이나 서민들의 생활복, 기생, 무당의 복식에서는 유색계열의 다양한 색을 사용했다. 특히, 청, 적, 황, 백, 흑의 오방색을 모두 사용한 색동은 한국인의 심성으로부터 출현한 가장 호화로운 색채 표현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즉 색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소재로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색동이란 아이들의 옷 소매의 동을 여러 빛의 조각으로 모아 대는데 쓰는 좁은 형겅오리²⁾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단지 색동의 색채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색동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색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색채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색동의 미적특징에 대한 연구로 색동저고리, 원삼, 활옷, 무복 등의 색동 색

을 적, 청, 황, 백, 녹, 분홍, 자주의 색명으로 제시하고 이를 음양오행사상 측면에서의 색동연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³⁾, 색동옷의 시각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색동옷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색동의 미적 특징으로 음양오행사상에 의거한 색의 사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⁴⁾. 그리고 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미적 고찰에서는 색동의 유래, 활동, 미적고찰을 통한 색채의 색조변화와 색 너비의 조절, 구성방법의 다양한 변형으로 현대 복식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작품으로 제시하였고⁵⁾, 조선시대 이후 1950년대까지의 색동 복식을 중심을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며⁶⁾, 색동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에서 주역패의 형태와 색동작업을 통해 색을 색명보다는 색 계열로 인식하기도 하였다⁷⁾. 한편, 색동에 나타난 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색동을 오방색과 음양오행을 기본이론으로 색동의 상징적 의미와 전통미를 나타내고 밝고 화려한 전통색채를 디자인에 활용하여 전통 디자인 개발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색동의 색 배열을 현대적 응용으로 적용시켰으며⁸⁾, 색동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의상디자인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색채관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을 우리나라 복식사를 배경으로 한 색동의 역사적 고찰과 조형적 특성, 사례를 통하여 색동의 색 배열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패션 제품에 우리의 전통 색채 배합인 색동의 응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즉 색동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어떠한가, 성에 따른 차이는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색동의 응용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색동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였고, 색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II. 색동에 대한 문헌적 고찰

1. 색동의 정의와 특징

색동의 뜻은 '색을 동 달았다'로 동이란 한 칸을 말하며, 한 가지 색이든 오방색이든 모두 색동이 되는 것이다. 색색으로 동을 이어서 만들어 색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패치워크 된 우리나라 의복형태를 보인다. 또한 색동의 사전적 의미는 '오색(五色)으로 염색하거나 오색비단 조각을 잇대어서 만든 어린이 저고리의 소매깃 또는 잇대어서 쓰이는 좁은 형겔오리'¹⁰⁾, 색동천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깔로 층이 지게 한 천¹¹⁾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자연주의 색채사상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색동은 일반적으로 원색대비의 원단 조각을 잇대어 만든 어린이가 주로 입는 저고리의 소매깃을 말한다. 색동천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깔을 층이 지게 한 천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무지개 빛깔과 같이 아름다운 색채를 동경하여 이로써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양에서 무지개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무지개는 선녀들이 다니는 통로로 신성하게 여겼으며 동심의 기쁨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되었다.

색동은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색채배열에 의해 구성되며 주위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색채의 조합으로 한국적인 색의 조화를 이룬다. 조각보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색동은 쓰고 남은 천으로 어머니의 솜씨와 정성이 들어가서 잇다 보니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게 되고 안고름의 색도 남은 천으로 여러 색을 사용하였다. 예로부터 백의민족이라 불린 우리민족 복식의 주조색인 백색에 대해 파격적인 색 조화로 부각되어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적인 심성으로부터 출현한 가장 화려한 색채표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색동은 선명한 원색배열의 질서를 형식으로 취함으로써 원색조화를 보인다. 이처럼 색동은 한국적인 색채조화를 보여주는 물질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잘 알려진 한국의 줄무늬이지만 한·중·일의 삼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색

동형식의 색채대비는 우리나라에서만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¹²⁾

2. 색동의 역사적 고찰

색동의 형태는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나타났고 상고시대에는 동양의 다른 나라 복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일종의 줄무늬라고 할 수 있다.¹³⁾ 색동은 악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음양오행설에 따라 오방색을 붙인 것이라고도 하고 고려시대의 승려들이 그들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하여 입히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한다.¹⁴⁾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수직기 폭이 40cm를 넘지 않아서 소매를 달 때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색동을 사용하였다는 설¹⁵⁾과 여인들이 옷을 만들다 남은 귀한 비단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이어서 만든 천이었다는 추측도 있다. 또한 일종의 줄무늬로 나타난 색동은, 중국 당 시대에 출현했던 직물의 직조문양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여 진다.¹⁶⁾

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복식에는 일종의 장식연인 색선이 있어 유(襦), 포(袍) 등의 깃, 도련, 소매부리와 치마의 끝단에 둘러져 있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덕흥리 고분의 '견우직녀도'에서 직녀의 상과 부인고거도<그림 1>, 약수리 벽화의 색동상, 수산리 고분 변화의 귀부인의 상<그림 2> 등으로 보아 고구려시대에 이미 여성들에게 색동치마가 착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경주 황남동에서 출토된 신라 토우 상<그림 4>를 통해 세로 줄무늬의 상(襦)을 볼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무관의 직책을 깃의 색으로 구별하는 등, 색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색동의상이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의 여인들이 색동의상을 착용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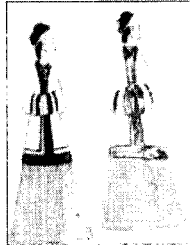
백제시대의 유물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일본의 정창원 유물과 다카마츠층에서의 부인상<그림 5>에도 줄무늬의 색동치마가 있는 것으로



〈그림 1〉 고구려 덕흥리
부인고거도¹⁸⁾



〈그림 2〉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¹⁹⁾



〈그림 3〉 고구려
쌍영총 귀부인도²⁰⁾



〈그림 4〉 신라의
토우상²¹⁾



〈그림 5〉 일본 다카마츠총
부인상²²⁾

로 미루어보아 일본이 백제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던 시대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백제의 여인들도 색동의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서도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으나 금오장위군이 쓴 복두를 색동으로 위를 묶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색동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³⁾

2)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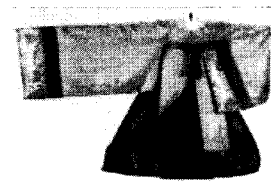
조선시대 복식에서 색동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들 저고리, 명절복, 까치두루마기, 굴레 등에 애용되었으며, 어른들의 마고자, 무복(舞服), 무복(巫服), 원삼, 활옷 등에도 사용되었다.²⁸⁾ 아기 왕자의 초파일 때때옷, 부모의 회갑, 회혼례 때에 장성한 자식들이 어린아이들이 입는 까치저고리나 마고자와 같은 색동의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궁중에서 착용하거나 서민들이 혼례 때 착용하던 원삼이나 활옷에도 한삼이 붙기 전 소매 끝에 두 세 줄의 색동을 첨가함으로써 미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다. 무복(舞服)에서는 주로 한삼부분에 색동을 사용하였는

데 한삼의 울동과 어우러져 화려한 색채미를 표현하고 있다. 궁중에서 열리는 대소잔치 때 약방기생 중에서 뽑힌 무희(舞姬)들은 원삼에 화관을 쓰고 손목에는 색동한삼을 끼고 무용을 연출했다. 무복(巫服)에도 색동은 보편화 되어 있어서 국혼 전에 별궁에서 거행했던 대규모의 화려한 ‘여담’굿에서는 다섯 명의 무녀들이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춤을 추며 굿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색동은 굿을 할 때 원색의 시각효과로 주술적인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데 굿에서 무당이 착용한 포의 색동소매나 색동 한삼, 색동의 깃발 등은 신과 교통하는 주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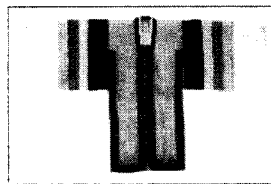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삼국시대의 색동이 주로 치마에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주로 저고리, 원삼, 활옷, 두루마기, 마고자 등의 상의에 색동이 나타나는 변화를 보인다. 또한 색동이 의복의 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식 문양의 모티브로서 활용되거나 장신구나 보자기, 색 실타 같은 생활용품에까지 사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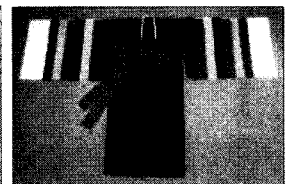
〈그림 6〉 덕원옹주 녹원삼
1837년대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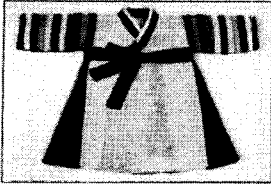
〈그림 7〉 황원삼 조선후기²⁵⁾



〈그림 8〉 안동 원삼
조선말기²⁶⁾



〈그림 9〉 무복(巫服)²⁷⁾



〈그림 10〉 까치두루마기³⁰⁾



〈그림 11〉 색동마고자 위에
부금전복 착용³¹⁾



〈그림 12〉 회갑 색동마고자³²⁾

3) 개화기 이후 현재

개화기 이후에도 색동은 어린아이의 돌복이나 명절복 등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전통 혼례식에서의 예복, 무복(巫服)이나 무복(舞服) 등에도 계속 이용되고 있다. 즉 남녀의 구별 없이 어린이들에게 명절이나 설날, 평상시에도 깃, 끝동, 고름 등에 금

박을 넣은 색동저고리가 입혀지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 생활한복의 등장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이 평상복, 외출복, 행사용 예복 등에 색동이 응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색동은 민속 공예품이나 포장용지 등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명절에 색동이 자주



〈그림 13〉 이영희 2001
S/S33)



〈그림 14〉 설유행 2002
F/W34)



〈그림 15〉 설유행 2003
F/W35)



〈그림 16〉 박윤수 2004
S/S36)



〈그림 17〉 JI HAYE 2000
S/S37)



〈그림 18〉 JI HAYE 2002
S/S38)



〈그림 19〉 JI HAYE 2002
S/S39)



〈그림 20〉 이상봉 2004
S/S40)

사용되면서 색동에서 느껴지는 즐거운 기분이 현실에 재현되면서 널리 수용되어 오고 있다.

현재 색동은 생활한복과 행사용 예복 등에 주로 응용되고 있으며, 민속 공예품이나 포장용지 등에도 색동의 사용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와서 디자이너들도 색동을 한국적인 이미지로서 현대패션의 주요 모티브로 생각하여 색동의 색이나 색 너비 등에 다양한 변형이 시도되어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상봉, 설윤형, 이영희, 김지혜 등의 디자이너들은 색동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세계무대에 선보이면서 우리의 전통 색채와 색동을 소개하고 있는 작품이 자주 보여지고 있다(그림 13 - 20).

3. 색동과 음양오행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주역을 근간으로 생활하였다. 주역의 기본은 우주론을 의미하는 태극 혹은 무극의 상태가 둘로 나누어져 음과 양이 생겨났다는 원리에 있다. 즉 음과 양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이 선호했던 색채는 어떤 색이 가진 상징성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 등 전통 문화적 요소에 의해 색채가 사용되어져 오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통 문화적 요소로 형성된 다른 나라의 색채 형성 예를 들어보면, 중국에서는 홍색, 황색, 청색, 감색 등이 있으며, 독일에서는 흑색, 백색, 갈색, 갈색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흑색, 백색, 회색, 적색을⁴¹⁾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민족의 색채의식은 민족고유의 신앙과 생활양식 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특히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정색의 사용순환에 의해 형성된 색채가 복색제도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음양오행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체계화되지 못하였을 뿐이지 사상체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대 부족 사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²⁾ 음양의 원리에서 파생된 오행을 상징한 오방색, 즉 흑, 백, 청, 황, 청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색채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설에서 풀어낸 다섯 가지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기본색을 정해서 이것을 오방색, 정색이라고 불렀고, 오색 또는 오채라고도 했다. 황색은 오색의 중심색이고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하며 4계절에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천자를 상징하는 색으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 황제만이 황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오행 중 토(土)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한다. 청색은 방위로는 동쪽, 계절별로는 봄에 해당한다. 오행 중에는 목(木)으로, 하늘과 무성한 식물, 물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방에 해당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인 까닭에, 청색은 청정한 생명을 상징이며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적색과 함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색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적색은 방위로는 남쪽,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된다. 오행 중에서 화(火)로서 태양, 불, 피 등을 상징하는 색이다. 온화하고 만물이 무성한 남방에 해당되고 태양, 불, 피 등과 같이 생명력이 충만한 색이므로 가장 강렬한 양의 색으로 인식되었다. 적색은 백색 다음으로 우리 민족과 깊이 밀착되어 있는 색이며, 성장에 속하며 인간의 예를 관정한다. 백색은 서쪽과 가을에 해당한다. 백색은 빛을 상징하며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백색을 신성하게 여겼다. 또한 흰색은 순결, 청렴 등을 상징하며 우리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 민족의 대표 색으로 일컬어졌다. 오행 중에는 금(金)에 해당된다. 흑색은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에 속한다. 오행 중 수(水)로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스며들기를 좋아하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황, 청, 적, 백, 흑과 같이 동, 서, 남, 북, 중앙에 해당하는 색을 오색이라 부르며 양에 해당되고, 각 방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오색인 녹, 홍, 벽, 자, 류황(驪黃)류를 간색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정색과 정색과의 혼합으로 생기는 색인 간색 외에 모든 색을 잡색이라 한다. 이처럼 음양오행설은 생활철학으로서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만큼 인생이나 모든 생활양식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재 우리말 사전에 나타난 기본 색채가

오방색인 황, 청, 적, 백, 흑에 해당하는 노랑, 파랑, 빨강, 하양, 검정의 다섯 가지인 것으로도 우리의 색채관이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색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분석

1.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었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하였으며, 2006년 5월에 예비조사를 하여 설문문을 보완한 다음,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10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었으며, 색동에 대한 인지도와 연상 및 이미지 관련문항, 색

동의 응용 관련 문항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색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 관련 문항은 선행연구⁴³⁾를 참고로 하여 구성되었다. 색동의 인지도에 대한 문항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색동에 대한 인식과 흥미에 대한 문항이었고, 색동의 색상과 배색, 색동 색상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색동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은 7점 양극 척도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는데, 1점과 7점에 각각 해당하는 형용사를 명명하여 4보다 작으면 왼쪽 형용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의미하며, 4보다 크면 오른쪽 형용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의미한다. 색동의 응용에 대한 문항은 색동이 응용되어진 상품에 대한 의견과 응용방법에 대한 문항으로 선행연구⁴⁴⁾를 토대로 하여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특성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에 따른 색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 및 색동 응용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표 1>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 별	남학생	110	35.4	가장 선호하는 색상	파랑색	55	18.1	
	여학생	200	64.6		분홍색	46	15.1	
	계*	310	100		흰 색	37	12.2	
학 년	1학년	58	18.8		빨강색	32	10.5	
	2학년	162	52.6		노란색	32	10.5	
	3학년	53	17.2		검정색	26	8.6	
	4학년	35	11.4		보라색	22	7.2	
	계	308	100		하늘색	19	6.3	
전공계열	인문사회	45	14.5		초록색	19	6.3	
	자연/공학	85	27.4		기 타	15	5.3	
	생활과학	36	11.6		계	303	100	
	농 학	39	12.6		색동의상 착용 시기	취학 전	95	30.6
	예술/체육	78	25.2			초등학교	118	38.1
	의학/약학/ 수의학/기타	27	8.7	중·고등학교		7	2.3	
	계	310	100	대학교		3	1.0	
			입어 본적 없다	85		27.4		
			기타	2		0.6		
			계	310	100			

* 무응답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1) 색동에 대한 이해도

(1) 색동에 대한 인지도

조사대상자인 남녀 대학생들이 색동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색동 및 색동옷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동 및 색동옷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색동옷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색동옷이 우리 고유의 의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입어왔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으로 긍지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색동의 색상과 색상 배열에 대한 이해

대학생들은 색동이 어떠한 색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색동에 대해서 떠오르는 색상, 색동의 색채 배열 및 남성적/여성적인 색동의 색채배열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색동 또는 색동옷에 대해서 떠오르는 색상

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그림 21>, 빨강색(263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노랑색(252명), 파랑색(191명), 초록색(132명), 백색(75명), 주황색(5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 대학생들은 색동하면 떠오르는 색은 삼원색인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빨강색이 우선적으로 색동의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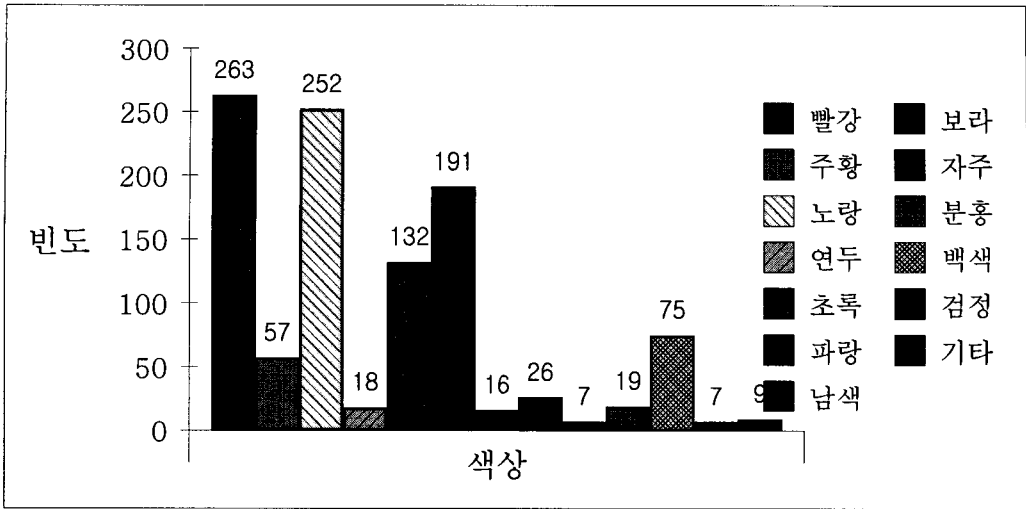
다음으로 색동은 어떠한 색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색상조합으로 예시를 주어 조사한 결과는 <표 3>의 같다. 대학생들은 색동의 색채배열은 빨강+노랑+주황+초록+파랑색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빨강+노랑+흰색+파랑+초록, 빨강+흰색+노랑+초록+분홍+파랑, 빨강+노랑+주황+초록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에 따라 색동의 색채배열에 대한 인지도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남성적인 색동 색상과 여성적인 색동 색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그림 22>를 살펴보면, 남성적인 색동의 색상은 파랑, 남색, 초록, 빨강, 백색의 순서로 나타났고, 여성적인 색동 색상은 노랑, 빨강, 주황, 분홍, 백색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남성적인 색동 색상의 배열과 여성적인 색동 색상의 배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색동에 대한 인지도

관찰빈도(기대빈도)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χ^2
색동, 색동옷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다	93(99.7)	193(186.3)	286(286.0)	10.048***
	아니다	14(7.3)	7(13.7)	21(21.0)	
색동, 색동옷이 무엇인지 안다	그렇다	79(89.2)	174(163.8)	256(253.0)	10.028***
	아니다	30(19.8)	26(36.2)	58(58.0)	
색동옷이 우리고유의 의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예전부터 우리조상들이 입어 왔기 때문	59(47.7)	78(89.3)	137(137.0)	8.179
	우리나라에서만 입고 있기 때문	11(15.3)	33(28.7)	44(44.0)	
	현재도 즐겨 입기 때문	5(6.3)	13(11.7)	18(18.0)	
	우리나라의 전통의상으로서 긍지를 느끼기 때문	21(24.7)	50(46.3)	71(71.0)	
	기타	4(5.9)	13(11.1)	17(17.0)	



〈그림 21〉 색동 또는 색동옷에 대해 떠오르는 색상

〈표 3〉 대학생이 인지하는 색동의 색채 배열

관찰빈도(기대빈도)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χ^2
색동의 색채 배열				9.127
빨+노+주	16(9.5)	11(17.5)	27(27.0)	
빨+노+주+초	14(15.9)	31(29.1)	45(45.0)	
빨+노+주+초+파	35(34.2)	62(62.8)	97(97.0)	
빨+노+흰+파+초	30(31.0)	58(57.0)	88(88.0)	
빨+흰+노+초+분+파	13(16.2)	33(29.8)	46(46.0)	
기타	1(2.1)	5(3.9)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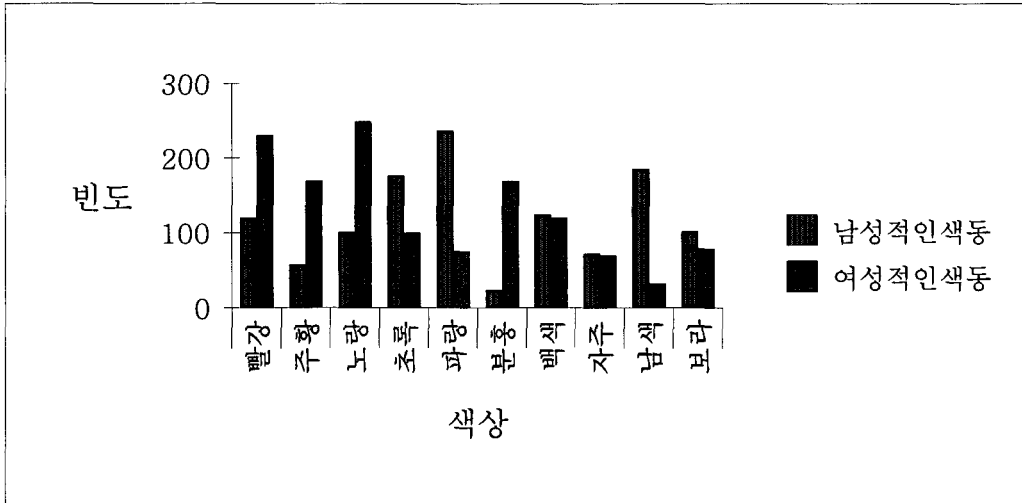
2) 색동옷에 대한 연상과 느낌

대학생들은 색동옷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색동옷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 색동옷이 어울리는 대상 및 계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색동옷으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성에 따른 차이 없이 대부분 색동저고리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동치마나 혼례복 또는 무당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또한 색동옷에 대한 느낌을 보면, 남녀 대학생 대다수가 '귀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수의 응답이었으나 '흔스럽다'와 '아름답다'로 나타나서 색동에 대한 이미지는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색동옷은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자, 남녀노소 모두의 순으로 어울린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색동옷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계절은 남녀 대학생 모두 봄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남자 대학생들은 봄 다음으로 가을, 겨울, 여름, 사계절 모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자 대학생들은 봄, 겨울, 가을, 사계절 모두, 여름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동옷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상으로는 대다수가 명절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2〉 남성적인 색동과 여성적인 색동의 색상

〈표 4〉 색동옷에 대한 연상과 느낌

관찰빈도(기대빈도)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색동옷에 대한 연상	색동저고리	93(96.1)	181(177.9)	274(274.0)	1.868
	색동치마	9(6.7)	10(12.3)	19(19.0)	
	혼례복	2(1.8)	3(3.2)	5(5.0)	
	무당복	2(2.1)	4(3.9)	6(6.0)	
	기타	2(1.4)	2(2.6)	4(4.0)	
색동옷에 대한 느낌	귀엽다	76(76.2)	140(139.8)	216(216.0)	6.493
	멋있다	2(0.2)	0(1.3)	2(2.0)	
	흔스럽다	17(14.1)	23(25.9)	40(40.0)	
	아름답다	7(10.6)	23(19.4)	30(30.0)	
	기타	7(7.4)	14(13.6)	21(21.0)	
색동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대상	여아	26(25.3)	46(46.7)	72(72.0)	11.785
	남아	7(4.9)	7(9.1)	14(14.0)	
	남아 + 여아	49(56.3)	111(103.7)	160(160.0)	
	젊은 여성	0(2.8)	8(5.2)	8(8.0)	
	남녀노소 누구나	16(11.3)	16(20.7)	32(32.0)	
	여아 + 젊은 여성	7(4.9)	7(9.1)	14(14.0)	
색동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계절	기타	3(2.5)	4(4.5)	7(7.0)	12.395
	봄	53(43.5)	70(79.5)	123(123.0)	
	여름	7(5.3)	8(9.7)	15(15.0)	
	가을	23(20.5)	35(37.5)	58(58.0)	
	겨울	18(24.4)	51(44.6)	69(69.0)	
색동옷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상	사계절 모두	8(15.2)	35(27.8)	43(43.0)	3.562
	평상복	4(2.1)	2(3.9)	6(6.0)	
	명절복	94(96.8)	182(179.2)	276(276.0)	
	파티복	2(2.1)	4(3.9)	6(6.0)	
	결혼복	4(4.2)	8(7.8)	12(12.0)	
언제든 상관없다	4(2.8)	4(5.2)	8(8.0)		

3) 색동에 대한 이미지

대학생들은 색동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색동에 대해 '따뜻하다, 부드럽다, 화려하다, 품위없다, 동적이다, 산뜻하다, 도시적이다, 싫어한다, 무겁다, 촌스럽다, 남성적이다, 귀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따뜻하다, 딱딱하다, 화려하다, 품위없다, 동적이다, 투박하다, 도시적이다, 싫어한다, 무겁다, 촌스럽다, 남성적이다, 귀엽다'로 색동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색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따뜻하다, 부드럽다, 화려하다, 품위없다, 동적이다, 투박하다, 도시적이다, 싫어한다, 무겁다, 촌스럽다, 남성적이다, 귀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동에 대해 남학생은 '부드럽다'고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학생이 '산뜻하다'고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투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색동이 더 부드럽고 산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색동의 응용

(1) 색동 응용 상품에 대한 생각

현재 색동이 응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의견

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이 남녀 대학생 모두 색동은 생활한복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 공예품, 쿠션과 방석 등 실내장식용품, 행사포스터나 .마스코트, 장신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동의 색채와 형태를 현대공예품에 응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전통적인 색동의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색동을 응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멋있고 좋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극히 적게 나타났다.

(2) 색동을 패션제품에 응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패션제품에 색동을 응용하여 디자인할 경우 어떤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색동은 셔츠에 가장 많이 응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신구, 스카프/목도리, 가방, 신발, 바지, 재킷,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색동을 장신구에 가장 많이 응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방, 스카프/목도리, 셔츠, 스커트, 신발, 기타, 재킷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5> 색동에 대한 이미지

구분	남학생		여학생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따뜻하다 - 차갑다	2.43	1.34	2.58	1.29	-0.928
부드럽다 - 딱딱하다	2.83	1.35	3.15	1.26	-2.045*
화려하다 - 수수하다	2.48	1.62	2.55	1.52	-0.353
품위 있다 - 품위 없다	4.08	1.30	3.91	1.29	1.073
정적이다 - 동적이다	4.51	1.71	4.26	1.61	1.265
산뜻하다 - 투박하다	2.92	1.37	3.33	1.25	-2.167***
전원적이다 - 도시적이다	3.14	1.43	3.08	1.20	0.327
좋아한다 - 싫어한다	3.55	1.46	3.61	1.31	-0.381
가볍다 - 무겁다	3.60	1.50	3.58	1.29	0.127
세련되다 - 촌스럽다	4.24	1.33	4.21	1.31	0.205
여성적이다 - 남성적이다	3.19	1.41	3.29	1.25	-0.612
귀엽다 - 원숙하다	2.18	1.40	2.48	1.60	-1.571

<표 6> 색동이 많이 응용된 상품

관찰빈도(기대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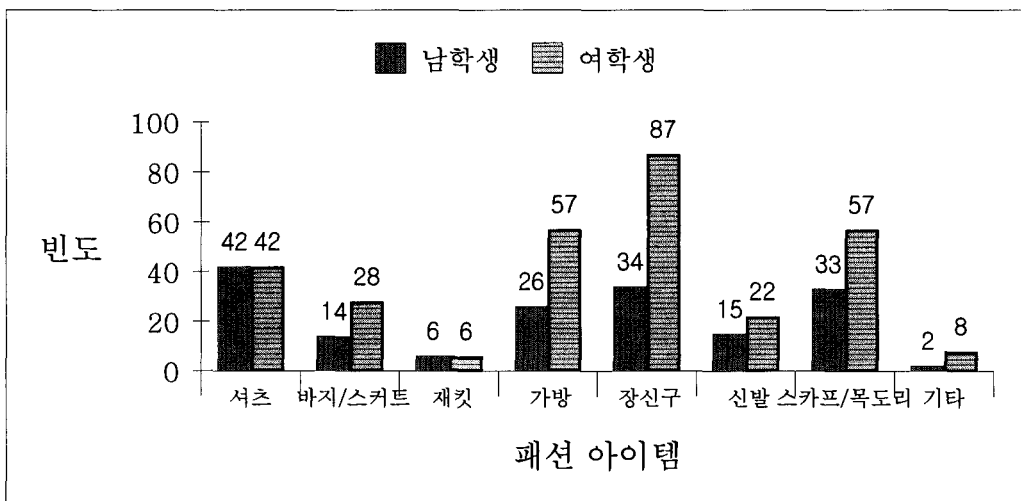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생활한복	45(42.1)	74(76.9)	119(119.0)	10.103
생활공예품	18(24.8)	52(45.2)	70(70.0)	
쿠션과 방석, 실내장식용품	26(22.3)	37(40.7)	63(63.0)	
행사 포스터나 마스코트	14(9.6)	13(17.4)	27(27.0)	
장신구	5(8.8)	20(16.2)	25(25.0)	
기타	1(1.4)	3(2.6)	4(4.0)	

<표 7> 현대 공예품에 색동을 응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관찰빈도(기대빈도)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멋있고 좋다	15(18.0)	36(33.0)	51(51.0)	2.981
상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9(7.4)	12(13.6)	21(21.0)	
전통적 색동의 가치를 손상 시킨다	76(73.6)	132(134.4)	208(208.0)	
외국에 홍보하는 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3(3.9)	8(7.1)	11(11.0)	
기타	6(5.3)	9(9.7)	15(15.0)	

따라서 색동을 패션제품에 응용할 경우, 남학생을 위해서는 티셔츠나 셔츠에 응용하는 것이 좋으며, 여학생을 위해서는 장신구에 응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3> 패션제품 아이템별 색동 응용에 대한 생각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색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색동의 응용관련 상품에 대한 의식을 고찰한 것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색동 및 색동옷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색동옷은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색동 또는 색동옷에 대해서 떠오르는 색상은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초록색, 흰색, 주황색의 순이었고, 그 중 빨강색이 색동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색동은 빨강+노랑+주황+초록+파랑색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인지하였으며, 남성적인 느낌의 색동과 여성적인 느낌의 색동의 색상 배열은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3. 색동옷으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색동저고리의 이미지라고 하였고, 색동옷에 대한 느낌으로 '귀엽다'고 하였는데, 소수이었으나 '촌스럽다'와 '아름답다'라고도 하여 색동에 대한 느낌은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4. 색동옷은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어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은 봄이며, 명절복에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5.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색동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해 보면, 따뜻하다, 부드럽다, 화려하다, 품위없다, 동적이다, 투박하다, 도시적이다, 싫어한다, 무겁다, 촌스럽다, 남성적이다, 귀엽다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색동에 대해 좀 더 부드럽고 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6. 현재 생활한복에 색동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다수 대학생은 색동의 색채와 형태를 현대공예품에 응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색동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7. 패션제품에 색동을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남

학생들은 셔츠와 장신구, 여학생들은 장신구와 가방에 응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동문양의 패션상품에의 응용 및 활용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색동옷에 대해 알고 있으나 색동 또는 색동옷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입어 온 우리 고유의 문양인 색동과 색동옷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색동에 대한 역사와 의미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색동문양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 관련 책자나 홈페이지 등에도 색동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2. 색동옷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색동저고리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촌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색동에 사용된 색채가 원색 위주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색동의 색상구성을 원색 뿐 아니라 다양한 톤으로 구성하고 각 색상의 사용 너비 등을 변화시킨다면 색동에 대한 촌스럽다고 느끼는 감성은 자연적인 이미지 또는 전원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색동에 대한 이미지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화려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충하여 표현되는 생활한복과 명절복 등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아동복에서 색동을 이용한 패션아이템의 개발은 전통을 살리면서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패션상품에서는 대학생 소비자를 위한 셔츠나 장신구 등에 부분적으로 색동 디자인을 응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외에 스카프, 목도리, 가방 등에도 색동 문양을 부분장식으로 응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색동을 모티브로 하는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상품을 개발한다면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지름길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이 충청지역으로 한정하였다는 점과 색동의 색상을 색명으로 제시해 주고 연상에 의하여 응답하게 한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으므로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현경 (1986). 색동옷의 시각적 반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 2) 한글학회 (1994). 우리말 글나라. 서울: 어문학, p. 2217.
- 3) 박상의 (1978). 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정현경 (1986). 앞의 논문.
- 5) 최윤정 (2001). 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미적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홍명화 (2003). 전통 색동 복식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고찰. 産業技術研究, 12(1), pp. 47-28.
- 7) 김정희 (2003). 색동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주역패의 형태와 색배열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나승미 (1995). 색동에 나타난 색의 상징성에 관한 논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성승연 (1999). 색동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10) 김영숙 (198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238.
- 11) 정인승 외 (1976).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p. 844.
- 12) 금기숙. 앞의 책. 열화당, p. 74.
- 13) 나승미 (1996). 앞의 논문, p. 26.
- 14) 최윤정 (2001). 앞의 논문, p. 7.
- 15) 성승연 (1999). 앞의 논문, p. 3.
- 16) 금기숙 (1997).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p. 74.
- 17) 최윤정 (2001). 앞의 논문, p. 8.
- 18) 김인환편 (1994). 동서미술의 흐름 II. 서울: 미술 공론사, p. 568.
- 19) 김원룡 (1974). 한국미술전집4-벽화. 서울: 동화 출판, p. 29.
- 20) 김원룡 (1974). 앞의 책, p. 57.
- 21)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53.
- 22) 김인환 편 (1994). 앞의 책, p. 681.
- 23) 백영자, 우리나라 로박의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p. 362.
- 24) 석주선 (1985). 衣.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p. 88.
- 25) 국립중앙박물관 (1998). 한국의 미-의상, 장신구, 보. 서울: 통천문화사, p. 22.
- 26) 안동대학교편 (1996). 안동지역전통복식. 대구: 안동대학교박물관, p. 66.
- 27) 석주선 (1985). 앞의 책, p. 119.
- 28) 나승미 (1996). 앞의 논문, p. 33.
- 29) 나승미 (1996). 앞의 논문, p. 35.
- 30) 석주선 (1985). 앞의 책, p. 113.
- 31) 김영숙 (1999). 조선조 후기 궁중 복식. 서울: 문화재단 궁중유물전시관, p. 124.
- 32) 금기숙 (1997). 앞의 책, p. 76.
- 33) 최윤정 (2001). 앞의 논문, p. 11.
- 34) 2006. 8. 7. www. firstview.com
- 35) 2006. 8. 7. www. firstview.com
- 36) 2006. 8. 7. www. firstview.com
- 37) 2006. 8. 7. www. firstview.com
- 38) 2006. 8. 7. www. firstview.com
- 39) 2006. 8. 7. www. firstview.com
- 40) 2006. 8. 7. www. firstview.com
- 41) 이명숙 (1998).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6,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pp. 5-22.
- 42) 김의숙 (1996). 한국의 민속 사상. 서울: 집문당, p. 195.
- 43) 오은경 (1998)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정현경 (1986). 앞의 논문.